

-아요/어요

핵요체 현재 시제

가장 많이 쓰게 될 어미입니다. 어간의 마지막 모음에 따라 어떤 모음이 붙을지 결정되고, 그 뒤 둘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 ㅏ 또는 ㅑ	-아요	살다 → 살아요
같은 모음 축약	-아요가 흡수됨	가다 → 가요
그 밖의 모음	-어요	먹다 → 먹어요
하다 동사	해요	공부하다 → 공부해요
ㅏ + 아 축약	와	보다 → 봐요
ㅣ + 어 축약	여	마시다 → 마셔요
ㅡ 탈락	-어요	쓰다 → 써요
이다	이에요 / 예요	학생이에요 / 친구예요

■ 언제 쓰나요

처음 만난 사람, 동료, 가게 점원 등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쓰는 일상적인 높임 표현입니다. 현재 시제를 나타내며, 대화에서는 가까운 미래도 나타냅니다: 내일 가요는 ‘내일 간다’는 뜻입니다.

선택 방법은 기계적입니다. 어간의 마지막 모음을 보십시오. 그 모음이 ㅏ 또는 ㅑ이면 아요를 붙이고, 나머지는 모두 어요를 붙입니다. 하다 동사만 예외로 해요가 됩니다. 한국어 동사의 상당수가 하다로 끝나므로 이 형태 하나가 아주 많이 쓰입니다.

그다음 축약이 일어나는데, 학습자가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. 가 + 아요는 가아요로 남지 않고 같은 모음이 합쳐져 가요가 됩니다. 보 + 아요는 봐요, 마시 + 어요는 마셔요가 됩니다. 규칙은 규칙적이지만, 표를 외우기보다 소리 내어 읽으면 더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.

■ 예문

- 1 저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해요.
- 2 이 커피 정말 맛있어요.
- 3 어디에 가요?
- 4 같이 점심 먹어요.
- 5 여기 앉아요.
- 6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.

■ 비교

-ㅂ니다/습니다
둘 다 높임 표현이지만 -ㅂ니다는 격식체로, 안내 방송·발표·뉴스·군대 등에서 씁니다. -아요/어요는 더 부드러우며 거의 모든 대화에 알맞습니다.
갑니다. (격식체 보고) / 가요. (일상 높임)

-아/어 (반말)
요를 빼면 반말이 되며, 친한 친구나 확실히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씁니다. 이 한 음절을 붙이느냐 빼느냐가 차이의 전부입니다.
어디 가요? (높임) / 어디 가? (반말)

미래의 의미
한국어는 예정된 일에 미래 시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. 시간 표현과 함께 -아요/어요만 써도 충분하며, -(으)ㄹ 거예요는 의도나 추측을 더합니다.
내일 가요. (내일 간다) / 내일 갈 거예요. (내일 갈 생각이다)

■ 주의

- ✗ 저는 학교에 가아요.
- 저는 학교에 가요.
어간이 이미 ㅏ로 끝나면 어미의 아가 그 안에 흡수됩니다. 사다 → 사요, 만나다 → 만나요도 마찬가지입니다.
- ✗ 한국어를 공부하어요.
- 한국어를 공부해요.
하다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-아요나 -어요를 붙이지 않습니다. 해요가 되며, 모든 하다 합성어도 이를 따릅니다: 일해요, 사랑해요, 운동해요.
- ✗ 저는 빵을 먹아요.
- 저는 빵을 먹어요.
어간 먹의 마지막 모음은 ㅓ로, ㅏ도 ㅑ도 아니므로 -어요를 붙입니다. 받침이 아니라 모음을 확인하십시오.